



북경 '798 예술거리'는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특구다. 군수공장을 개조한 거리에는 특유의 예술품들이 설치돼있다.

고판화 활용한 소통 인쇄예술 역사 이을 비결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㉔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하북성 무강 연화박물관을 방문하고 자정 늦게 북경 오웬 호텔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다. 여기에 여장을 풀 이유는 답사 일정 중 꼭 가야했던 수도박물관이 맞은편에 있어서였지만, 한편 그 옆에 세계 최대 벼룩시장인 판자웬 고판 시장이 열려서다.

판자웬 고판 시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새벽 4시에 개장되는 곳으로 중국 전국에서 고미술품 상인들이 모여 드는 곳이며, 고미술품에 관심이 많은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북경 관광의 필수코스인 곳이다.

고판화학회 회원 중 수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 새벽부터 채비를 꾸렸다. 일요일 개장 시간에 맞춰 호텔에서 두 블록 떨어진 시장 정문으로 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여전히 상인과 손님들로 북적이는 듯이나,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제 중국에서도 고미술품이 고갈되고 있다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증거로 생각된다.

실제 세계 토픽 뉴스에 등장하던 판자웬 시장에서 산 고미술품이 얼마 안 남은 진품으로 확인돼 황재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 사라졌고 이제는 공예품을 싸게 파는 이미테이션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수집가들에게는 고물 더미에서 고미술 진품을 발굴해 내는 광산이 하나 사라져 버린 느낌이다.

우리 일행은 새벽부터 보물찾기를 위해 동대문운동장 크기의 서너 배가 될 만한 판자웬 시장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판자웬 시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져 있다. 사방이 훑었지만 지붕으로 둘러쳐져 있는 곳 중에 위쪽에는 주로 고미술품들이 모여 있고, 아래쪽으로 신작 공예품들이 판매된다.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상설시장이 열리며,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심 건물 1층은 가구가 2층 전문 수집가를 위한 미술품들이 판매된다.

고판화와 관련 있는 전문매장이 있는 2층 마니아 코너에서 추수가 끝난 논두렁에서 이삭 줍는 심정으로 작은 눈을 부릅뜨고 유물을 찾아 다녔지만 쉽게 가져올 수는 없었다. 고판화와 관련된 좋은 작품을 발견되면, 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다.

이날도 두 점의 좋은 작품을 만났다. 천진 양류정에서 청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연화판화와 <무량수경>에 묘사된 지옥세계를 삽화로 만든 대형 판화가 눈에 들어왔으나 값이 한국 돈으로 천만 원을 호가했다. 결국 이날은 두 작품을 사진에 담아오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다.

고판화 관련 유물 수집은 1996년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처음에는 고판화 관련 목판이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정도 였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최소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상회하니 그 가치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국제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위치에서 교류 했을 때가 고구려의 광개토태왕 시절 등 몇 차례 되지 않는다.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 지금도 이에 포함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

고판화박물관도 이 시점을 중심으로 중국 유물을 수집했고 중국 고판화 작품 중 현존에도 없는 귀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 고판화 관련 자료 소장 처로 세계적으로 손꼽는 곳이 됐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을 압도했던 20여 년간의 시절 인연도 한몫했다. 지금도 중국 고판화관련

학자들과 소장자들과의 인연을 더욱 깊이 있게 쌓아 나갈 때 좋은 열매로 승화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중국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한·중 고판화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한 것도 그런 이유다.

판자웬 고판 시장을 뒤로하고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 막으로 들린 곳은 '798 예술 거리'다. 2010년에 들렀을 때는 거리 초상화가가 그려주는 그림에 심취해 거리를 자세히 탐방하지 못해 아쉬웠다. 다시 와보니 사진으로 보던 거리만이 아니라 골목 구석구석마다 예술적인 감각으로 이뤄진 공예품과 다양한 상품들이 즐비했다. 예술 서적만 판매하는 대형 서적들과 다양한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한 특색있는 갤러리들도 늘어서 있다. 거리의 노점상도 먹거리뿐만 아니라, 예술 서적을 담판으로 판매하는 노점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 만큼 이곳이 문화예술로 특화된 거리이며, 관광객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798 예술거리'는 원래 군수 산업 기지로 '798'이라는 명칭은 산업 기지 내의 한 공장의 번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냉전이 끝난 이후 무기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70% 이상의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주머니가 가벼운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 빈 공장을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하며 작품 활동을 펼치면서 적막하던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한다.

판자웬 고판시장 고미술 관광 필수코스

10월 한·중 고판화 학술대회 개최

'북경 798거리', 창작과 관광 하나돼

값싼 임대료 덕분에 예술인들이 물리고 카페, 갤러리 등이 들어오면서 798예술구는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60만 m²의 넓은 부지에 전시장, 갤러리, 카페 등으로 개조했다. 798거리를 둘러보면서 현대에서는 문화와 관광이 융합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교를 개조해서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종종 볼 수 있지만, 북경의 798거리와 같이 창작과 관광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제는 문화 예술이 창작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공유하고 소통할 때 진정한 문화예술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문화의 큰 틀 속에서 보면 박물관의 역할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의 역할도 이용자들과 소통되지 못한다면 이름만 있는 박물관이나 학회가 될 수밖에 없다. 고판화학회도 고판화 관련 학자들이 모인 연구단체이지만, 고판화를 활용해 창의적인 일하고자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될 때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판화학회의 4박 5일의 제1차 해외 답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고판화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가 성장 동력의 주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끝>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제공=황진, 정찬민, 고판화박물관 제공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798 예술거리'에 설치된 조각상. 사회주의 예술의 단면을 느낄 수 있다.



세계최대 벼룩시장인 판자웬 시장. 중국 전역의 고미술 상품이 모인다.



수많은 서적과 유물들이 판자웬 시장 상점을 채우고 있다.